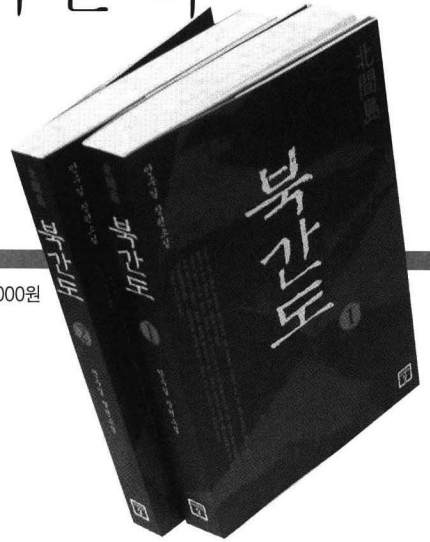


거친 간도 땅의 흠냄새, 끊어진 역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책

미래의창 김성옥 편집장

《북간도》(전2권) 안수길 지음 | 각권 330쪽 내외 | 각권 값 10,000원



멍, 멍, 멍멍 멍! 멀리서 세차게 개 짖는 소리가 단속적으로 들려 온다.

“어째 상기 오겠까?”

기나긴 기근 속에 감자를 캐러 불법으로 강을 건너간 아들을 기다리는 노모는 늦은 밤,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왜 아직 오지 않는 걸까?” 하며 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한다. 김동환 시인의 <국경의 밤>을 연상시키는 소설 《북간도》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언제 이런 시절이 있었던가? 왜 그때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어야 하는가?

《북간도》는 미래의창이 처음 출판사 문을 열었을 때부터 묵묵하게 ‘빛 불 날’을 기다려 왔던 원고였다. 경제경영 및 실용서를 주로 내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의창에서 지난해 늦가을 《북간도》를 내자, 일부에서는 “시류에 잘 편승한” 혹은 “타이밍이 참 좋은”이라는 말과 함께 매우 의외의 기획물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그리고 왜, 미래의창은 이 케케묵은 원고를 다시 세상에 내놓기로 하였는가? 그것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가까운 조상이 과거 어느 때인가 한 번쯤은 간도의 찬바람 속에서 인생의 한 부분을 보낸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북간도》에 나오는,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간도 방언이, 또한 어렸을 적에 무수히 들었던 함경도 사투리와 비슷한 데서 오는 향수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미 나왔던 책. 이제는 잊혀진 책. 그리고 잊혀진 땅.

“누가 간도를 알 것인가? 누가 북간도에 관심이냐 가질까?”

나 또한 솔직히 《북간도》를 말로만 들었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음을 고백해야겠다. 의구심으로 낯날을 보내던 어느 날, 《북간도》를 정독하기로 결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이 책은 충분히 다시 세상에 나올 가치가 있다. 끊어진 역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이 책이 없다면 이제 누가 있어 그 치열한 역사를 살다간 사람들을 기억할 것인가? 반드시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책을 내기로 결정, 저자인 고故 안수길 님의 가족들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출간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큰 난관은 간도 사투리를 그대로 구사한 텍스트 입력, 그런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세대들이 입력한 텍스트는 그야말로 오자 천지였다. 사투리 발음을 그대로 옮기다보니 한글맞춤법에는 있지도 않은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간작업에 힘을 실어준 것은 그렇게나 관심 밖이었던 ‘간도’가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간도’ 붐(?)에 때맞춰 나온 《북간도》는 한 일간지의 대대적인 서평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북간치고는 대성공인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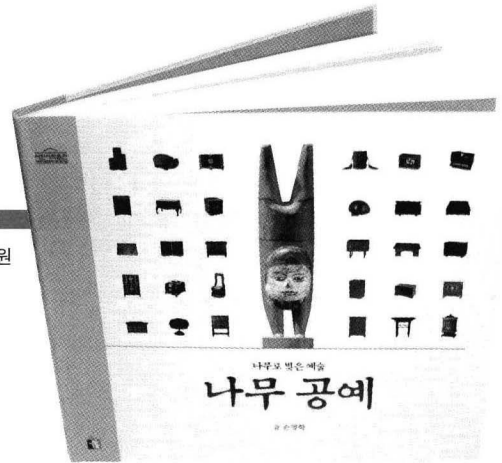
가슴 아픈 현대사의 한 대목을 소설의 형식에 담은 《북간도》는 슬프게도 100여 년 전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처했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변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그때처럼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건너가야 할 만큼 그렇게 궁핍하지 않다는 것뿐이다. 《북간도》에 나오는 조선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약하다. 거의 1세기가 넘게 흐른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강해졌는가?

고향을 등지고 거친 간도 땅에서 힘든 삶을 살다 간 그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북간도**

생활 속에 숨쉬는 박물관

나무숲 강여경 대표

《나무로 빛은 예술 나무 공예》 손영학 지음 | 102쪽 | 값 13,000원



몇 해 전 신문 인터뷰에서 “논픽션의 시대가 온다”(2002. 10)고 언급한 민음사 박맹호 회장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나무숲 출판사에서는 세기말 도서가 붐이던 1999년에 첫 책 《나무가 되고 싶은 화가 박수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 출판문화협회장이신 그의 예견에 부응했다기보다 논픽션 도서의 출간은 오히려 ‘당위’였던 것 같다.

《나무가...》를 필두로 한 ‘어린이 미술관’ 시리즈는 어린이 예술 도서 중 스테디셀러로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뒤이어 2001년 여름 기획에 들어간 ‘어린이 박물관’ 시리즈의 첫 책인 《나무로 빛은 예술 나무 공예》는 지난해 11월, 무려 세 해 만에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3년이라! 고작 한 해에 서너 권의 신간을 내는 작은 출판사에서 세 해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나긴 기획의 여정은 차라리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즐겁고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박물관이라 하면 학교에서 방학 때나 현장학습용 숙제로 내어 주면 마지못해 가보는 곳이거나, 설령 열심을 내어 박물관에 아이들과 가본다 하더라도 어려운 한자말로 나열된 인색한 설명글만으로는 어딘지 헛헛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 게다가 도시에서 자라난 젊은 부모들 가운데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자녀들에게 설명하기에 역부족인 경우도 많지 않던가.

그래서 생활과는 유리된 채 박물관이란 틀 속에 갇혀 잠자고 있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물에 대해 살갑게 안내하는 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분야에 관한 책이 꽤 나와 있긴 하나, 정답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기존에 실물 사진과 이름, 크기 정도만 수록되어 있는 박물관 도록과는 차별화된, 친절한 안내서를 어린이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단순히 유물을 소개하는 정도론 성에 차질 않았다. 우리의 유물을 보면서 문화예술

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안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발상을 기획의 모토로 삼아 글을 쓸 전문가를 찾아 원고 청탁을 했다. 편집 담당자와 함께 목차의 열개를 갖추는 데만도 많은 세월이 걸린 것 같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두루 모색했고, 디자인 포맷을 찾아내는 데만도 많은 이의 손을 거쳐야 했다. 또한 사진자료를 수합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책의 콘셉트에 맞추어 유물사진을 다시 촬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다행히 저자인 손영학 선생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소장 유물을 찾아내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사진촬영을 해올 수 있었다. 글과 사진자료를 마치 퍼즐조각을 맞추어나가듯 편집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말았다. 인쇄 직전까지 더 적합한 사진자료를 구하기 위해 동문서주하던 필자와 편집자의 등쌀에 번번히 재작업을 해야 했던 디자이너는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나무로 빛은 예술 나무 공예》다. 자화자찬 같지만 온 가족이 읽기에도 손색없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독후감상문대회에서 《나무로 빛은 예술 나무 공예》를 읽고 쓴 독후감상문이 최고상을 받았다. 감상문이라기보다 감상을 적은 글과 그림을 곁들인 책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무궁한가를 다시금 알게 되었다. 지난 봄에 열린 불로냐 북 페어 때에도 많은 외국인들의 눈길을 끌었고, 일전에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독일어 번역지원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관심이 서너 해 동안 많은 이들이 함께 고생한 노력을 씻은 듯 잊게 해 주었다. **나무**

선생님 원고는요??

다빈치 이가은_예술팀장

《나는 사진이다》 김홍희 글·사진 | 294쪽 | 값 15,000원



편집자의 가장 중요하고 힘든 업무 중 하나인 원고 독촉. 출간 일정에 맞추어 원고 마감일을 정하고 저자, 번역자에게 거듭 부탁드리지만, 사실 제 날짜에 원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그렇게 늦어지는 일정을 모두 감안하여 마감일을 정하고 통보함에도, 늘 늦어지는 원고 때문에 쫓기듯이 작업을 해야만 한다. 게다가 예술서에는 원고뿐 아니라 본문과 표지에 삽입되는, 백여장 가까운 사진이나 그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자가 저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자와 편집자와 출판사, 모두 상황과 처지가 각각이라 전화로 독촉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예민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 초에 출간된 《나는 사진이다》의 저자 김홍희 선생님은 매우 멋진 분이다. 매력적인 미소와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좌중을 휘어잡는 말솜씨, 글솜씨, 그리고 사진솜씨.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다. 사람, 사진, 술, 담배를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또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각종 인터넷 통신 용어까지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시는 선생님은 틈이 날 때마다 메신저에 접속해 계시므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 사항이나 일정을 알려드리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원고를 주고받는 등 즉시즉시 일처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메신저는 원고 독촉에서 제일 빛나는 역할을 해주었다.

1년 366일(?) 술을 드신다는 애주가 선생님. 원고 마감일에도 어디에선가 거나하게 술을 드시고 계신다. 함부로 전화를 할 수는 없어, 어렵게 문자 메시지 한 개 보내놓고 애타는 편집자는 밤늦도록 메신저에 접속해서 선생님을 기다린다. 드디어 '결결'님(선생님 대화명) 접속.

띠리링. “선생님, 이제 오셨어요? 많이 늦으셨네요.” 먼저 예의 바르게 인사말을 전한다. “기분 좋게 한 잔 하셨나 봐

요.” 이미 늦은 시각. 마음은 조금하지만 꼭 참고 이리저리한 말들을 둘러대며 선생님의 기분을 살핀다. “그런데, 선생님 원고는요?? 오늘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대답. “하이고, 내가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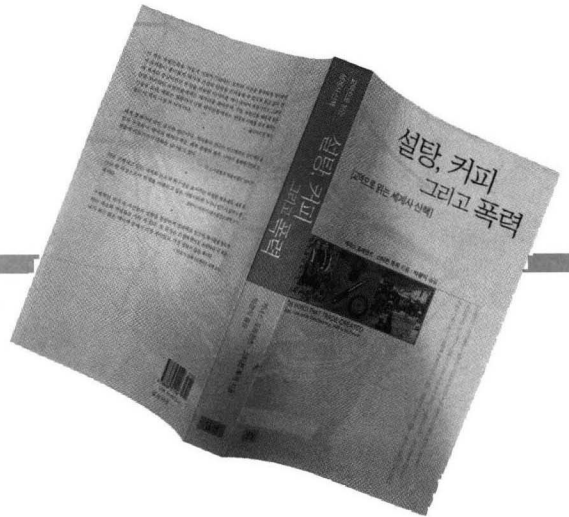
책이 출간되기까지 여러 번 이런 대화가 이어졌고, 선생님은 마감일을 꽤 잘 지켜주셨다. 친구, 동료들과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에 주로 이용되던 메신저가 업무에 이토록 도움이 될 줄이야. 메신저는 저자와 편집자 사이에 있을 법한 부담감과 결끄러움을 없애주었다. 물론 이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친근하게 대화에 응해 주시는 선생님의 깊은 감각과 이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선생님은 만나는 사람들도 두에게 농담반 진담반, 다빈치 편집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메신저 켜놓고 감시하면서 글 쓰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자꾸 원고 재촉해 대면 절교하고 감시 못하는 곳에서 은둔하시겠다고 협박도 하신다. 편집자는 너무 억울하다.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아야 하는 것이 편집자의 숙명인 것을 어떡하랴.

‘사진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라는 새로운 책을 준비하시는 '결결'님은 오늘도 접속중이다.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편집자는 원고 점검에 들어간다. “선생님, 오늘도 사진 찍으라, 글 쓰시라 힘드셨죠? 토닥토닥 어깨 두드려 드릴까요? ^^” 애교 섞인 한 마디 뒤에 이어지는 유쾌한 대답. “하이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여? 카카카” 선생님의 웃음소리는 늘 경쾌하다.

선생님, 편집자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잘 봐 주يس소~ 감사 합니데이~^^/

1400년대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세계체제의 진상

심산 최원필 대표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 교역으로 읽는 세계사 산책》
케네스 포머란츠 · 스티븐 토크 지음 | 박광식 옮김 | 484쪽 | 값 18,500원

우리는 유럽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세계사를 은연중에 서양사와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산업화는 자체 동력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자본주의가 전세계로 퍼져나가 현재의 세계경제(Global Economy)를 형성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 교역으로 읽는 세계사 산책》은 이러한 유럽 중심주의를 여지없이 혁파한다. 유럽이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일 뿐이고, 그 훨씬 전부터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상업망이 유럽 경제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 네트워크에 끼어두고 싶어 안달이 났던 사람들에 불과했다고.

그뿐 아니라 저자들은 요즘에 거론되는 세계화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전에는 독자적이고 고립되어 있던 여러 사회가 유럽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로소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진 복잡한 문화간 네트워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즉 적어도 1400년대부터는 세계체제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각 문화권들이 서로 협력하고 갈등했으며, 한편으로는 폭력으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도 했다(주로 유럽인들에 의해서)는 것이 저자들의 분석이다.

이 책에는 이민자와 상인, 무역업자와 수백 채취인, 해적과 사략선(약탈을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선박) 선장, 발명가와 생산업자, 뱃사람과 노예, 기업가와 기술자, 모험가와 광고주, 가우초(남미 팜파스의 목동)와 구아노(칠레 해안에 쌓여 있던 새들의 배설물) 선적인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경제라는 무대에서 나름의 배역을 매력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서 거래되는 품목 역시 설탕과 커피, 차, 담배, 코코아, 면

화, 감자, 땅콩, 쌀, 비단, 은, 금, 연지벌레, 노예, 무기 등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다양하지만 모두 세계경제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 소품들이다.

이러하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귀족들과 커피를 마시는 궁정 연회 장면에서도 세계경제는 여지없이 드러난다. 커피는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에서 사온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설탕은 아프리카의 상투메 섬이나 남미 브라질의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던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가톨릭 국가의 왕궁에서 음미되던 이 무슬림들의 음료가 중국 도자기에 담겨 있었으니, 세계경제는 이미 일정한 단계에 진입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교역과 관련된 술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오늘날의 철도 궤간이 왜 로마 시대의 도로 폭과 같게 되었는지, 깡통이 만들어지고 나서 깡통뚜껑이 만들어지기까지 왜 6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최초의 주식회사가 사실은 해적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표준시가 정해지는 험난한 과정, 타자기 자판이 일부러 더디게 쳐지도록 고안된 사정들도 알려준다.

이와 같이 이 책은 기존의 세계사 서술이 안고 있던 유럽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로 세계경제의 형성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대중적인 읽을거리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또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폭력을 강조함으로써 지금의 세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안겨준다.

작금에 벌어지는 제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적 신군사주의를 바라보면서 최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비춰진 부시와 노무현의 묘한 대조를 음미해 본다. **심산**